파라미타 정상화 서둘러야

재정난·조계종사태 겹쳐 운영답보상태
이사 직원보강·불교학생회 지원 시급

조계종 포교원장이 선출된 가운데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라미타 당연직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이 선출된 만큼 파라미타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파라미타는 그동안 이사·회장·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인화와 책임감 부재', '재산 확보 실패'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또 98년말 부터 2월초까지 조계종사태의 영향을 받아 '사은(謝恩)의 밤' '문화애호활동' '지도자 연수' 등 당초 파라미타에서 계획했던 조직·교화·문화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정련스님은 "파라미타가 전국조직으로 발전했지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고 예산 또한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내에 파라미타의 현 재인 성타스님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파라미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중에서 이사선임, 예산확보, 지도자연수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파라미타 이사 수는 총 3명. 지난해까지는 총 7명이었지만, 지난해 9월 이사 4명이 임기를 마친 후 충원되지 않았다. 더욱이 3명의 이사 중에서 성타스님(불국사 주지)을 제외한 무상(前 봉은사 주지)·현근(前 조계사 주지)스님들은 이사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 파라미타 이사는 실질적으로 1명 뿐인 셈이다.

조계종이 올해 책정한 파라미타 지원금은 1억5천만원. 이에 대해 "파라미타 1년 경상비를 제하고, 일회성 캠프만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라는게 관계자의 항변이다. 이사들의 분담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계종 지원금은 파라미타에서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자산이기 때문이다.

파라미타는 종립학교보다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포교에 주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나 파라미타가 올해 운영 및 사업비로 예상하는 7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청소년교화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학송(광동여고 교감) 법사는 "파라미타가 성장을하기 위해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불교학생회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지 않으면,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파라미타가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파라미타의 최소단위인 분회 즉, 불교학생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련스님은 "2월말까지 이사를 선임하고, 중앙사무국 직원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3월초 불교학생회 지도자연수를 비롯해 시·도의 청소년 시설위탁 등의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⑤

민 병 돈 〈前 육사교장〉

"건강관리요? 모순된 얘기 같지만, 나는 특별하게 규칙을 정해 관리를 하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법이라고 봐요?"

군생활로 다져진 민병돈 前 육사교장은 건강에도 틈새가 없어 보인다.

육사(15기) 생도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불문에 들어선 그는 돌이켜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린 삶의 철학이 건강을 유지시켰다고 말한다.

"욕심버린지 오랩니다. 욕심이 없으니 분노하고 섭섭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내가 꼭 바라는 것이 없으니 애를 태울일도 없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스스로 욕심없음을 감지했다는 그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 몸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욕심을 놓으면, 우선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사에 초탈하려는 노력을 하게되지요. 사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모든 밖으로부터의 시선이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이의 눈에는 바보로 보이고 또 어떤 이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봅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욕심 버리니 몸도 따라 건강
많이 걷고 음식 체질에 맞춰

경봉스님의 법어 중에 "바보가 되거라"는 가르침은 곧바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즉효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이 바보로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제시한다.

또 한가지 뺄 수 없는 건강관리 비법으로 영양사인 아내 구문자씨의 사상체질에 입각한 음식관리를 꼽는다. 다행히 두 아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태음인이라 조리에서 반드시 체크된다.

심지어 외식으로 태음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취하는 날은 그 즉시 이를 해소시키는 '대안(對案)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다. 여담으로 들려주는 '많이 걷기'도 그가 챙기는 건강법.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항상 미리 서둘러 약속장소로 출발해 전철이든 버스든 한 두 정류장 전에 내린다. 이것은 전역후 생활의 여유속에서 찾아낸 비법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단 신

장애인 어린이집 개원
대구 남구종합복지관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도스님)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치료를 전담하는 유리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유리어린이집은 3세 이상 12세 미간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물리·심리치료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는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보육료는 15만원. (053)475-7733

수련회 활동 CD에 담아
문화부 청소년개발원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전국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CD 타이틀에 수록해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02)578-1679

대불청 지도자연수
대의원총회도 열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이하 대불청)는 1월 30~3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대의원 및 지구·지회 소속 불청지도자 1백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8차 대의원총회 및 제16차 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서 2억2천만원 규모의 대불청 예산이 가결됐고, 부회장에 구재완(전 사무총장)씨, 사무총장에 이종철(전 조계사청년회사무총장)씨 등이 인준됐다.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지도자들.

"알찬 프로…시간가는줄 몰랐어요"
어린이포교련연수 1백여명 참가

1월 30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지원스님)의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는 1백여명의 어린이지도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노래에 맞춰 율동을 배우느라 분주했다.

연수교육 입제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지원스님(삼보사 주지)은 격려사에서 "어린이들에게 본래의 맑은 성품을 찾아주는 여러분에게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어린이회지도자들은 1박2일이라는 촘촘한 일정 동안에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의지로 교육에 임했고, 군법당에서 참가한 군종병들의 교육태도도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2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 '법회를 겉도는 아동지도'(임숙희·경상대 교수),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박선영·동국대 교수), '불성 계발하는 조형놀이'(이명섭·이화미술학원장) 등 총 12강좌가 마련됐다.

인천 부르나어린이집에서 온 김미선씨는 "연수회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새싹들에게 전할까하는 행복한 고민이 앞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전스님(지장사 주지)은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새싹들에게 훌륭한 교육은 없다"며 "이번 연수회에서 배운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린이지도자들이 좋은 방편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에 청소년교화 법인 탄생
옥련청소년개발원 개원…스님 30명 참가

수련캠프·시설위탁 맡아

충남지역 불교계에서 사단법인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대표 종인스님, 이하 청소년개발원)을 개원해 화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개발원에는 종인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온양·아산지부장)등 충남지역 스님 30여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개발원은 1월 23일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았다.

종인스님은 "지역 청소년 육성·교화사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지정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 위탁"이라며 "청소년개발원은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도입할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에는 청교련 온양·아산지부가 개설되어 있지만, '법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정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을 위탁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온양·아산지부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옥련공부방'이 유일하다.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 위탁은 청소년단체에게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대외적 공신력 또한 높여주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개발원은 이미 '어울마당' '수련캠프' 등 도지정 청소년사업을 위탁받았다. 이중 25일 아산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어울마당'은 청소년개발원 첫 사업. 온양여자고등학교, 용화중학교 등에서 3백여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어울마당-청소년 민속놀이 한마당'에서는 사물놀이, 씨름, 닭싸움 등 전통놀이가 선보여진다.

김남녀실장(청소년개발원)은 "5월 중순까지 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역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실태조사' 등 기초 프로그램 진행에 노력할 것"이라며 "3개월간의 활동을 토대로 5월 29일 청소년개발원 발대식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불상·탑에 깃든 백제정신 조명
대전MBC '잃어버린 백제를…'

백제인들이 그들의 혼을 예술로 승화시킨 불상과 불탑. 대전MBC가 25일 방영하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백제불상, 그들의 미소'(담당PD 임치환)는 불상과 불탑에 녹아 있는 백제인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밤11시부터 60분간 방송되는 이 프로에서는 꾸밈없이 밝고 소박해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백제 최초의 마애불인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 백제 불상 중 유일한 사면석불인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제794호) 등이 소개된다.

또 목조에서 석조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엿 볼 수 있는 미륵사지탑(국보 제11호)과 백제 석탑의 완성된 형태로 손꼽히는 정림사지탑(국보 제9호)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임치환PD는 "백제인들은 그들의 불심과 아름다운 심성을 투박한 돌과 쇳덩이에 불어넣었다"며 "백제인의 삶과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아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방송 소식

BBS 설연휴 음악선물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설날 연휴인 14일~17일까지 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위주로 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나누는 기쁨, 이웃과 함께(오후5시5분~오후6시) △영화음악실 '스크린으로 만나보는 세계풍속'(밤10시~밤11시) △즐거운 설날, 마음의 노래(낮12시10분~오후2시) △음악이 있는 곳에(오후3시~오후5시) △퀴즈놀이 한마당(오후2시5분~오후2시50분) △우리 가곡으로 여는 아침(오전9시~오전10시)

btn 종교인 시청률 1위

불교TV(사장 신허스님)가 98년 11월29일~12월5일까지 실시한 케이블TV 시청률 조사에서 종교 3사중 선두를 차지해 4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불교TV는 15위를 차지한 반면 기독교채널인 KCTS는 18위, 평화방송 PBC는 24위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DCN(영화), KMTV(음악), 투니버스(만화) 채널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홈쇼핑채널도 최근 들어 상위권내에 진입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철인사천왕 13일 개봉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을 소재로 만든 불교애니메이션 영화 '철인 사천왕'(감독 김혁)이 13일 국도극장을 비롯한 전국 20여곳에서 동시 개봉된다.

이번 개봉에 앞서 제작사인 '날개달린 영화'에서는 3일 남산감독협회에서 기자 시사회를 가졌고, 6일에는 연강홀에서 '철인 사천왕' 주제곡 발표 및 로봇 애니메이션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키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멍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협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9시~8시)
- 불자기업 오스테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솔 선 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출장) (053) 655-302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화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월간 여래 Monthly YORAE

사과 말씀 올립니다

무명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시기 위해 불법 홍포에 여념이 없으신 스님 前에, 그리고 월간여래 정기구독 회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글 올립니다.

창간호를 선보인 월간 여래가 진정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고자 전 직원 100일 기도 입재합니다. 문서 포교의 원을 세우고 시작한 월간여래지고 지순 끝까지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기로 한 길인만큼 내외적인 정비로 더욱 정진하고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100일 기도 회향 후 찾아 뵐 강하고 아름다운 여래의 모습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여래 자문위원 및 이사추대
지역 지사장 및 취재기자 모집
불교인으로서 포교에 뜻을 두신 능력과 신심을 겸비한 분과 함께 여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력서는 우편발송으로 접수합니다.

정기 구독료를 입금해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서 본사에 전화 부탁 드립니다
미납 회원은 5월 이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여래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73-3 서영빌딩 2F
TEL.(02)535-5838 FAX(02)535-5839